FX Market Daily

2024-05-21

전일동향

전일대비 1.0원 상승한 1,355.90원에 마감

20일 환율은 전일대비 1.0원 상승한 1,355.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90원 하락한 1,354.00원으로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상승 전환후 1,358원까지 레벨을 높였다. 아시아 장에서 엔화와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다.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을 동결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보합권으로 상승폭을 반납했으며 네고 물량 등이 유입하면서 상단이 제한되었다. 이후 1,355원을 중심으로 거래되었고 1,355.90원에 최종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4.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70.6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54.00	1358.10	1354.00	1355.90	1356.20
엔화	870.25	872.05	867.44	867.61	-
유로화	1472.53	1477.01	1469.81	1471.9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76	-5.7	-13.15	-27.34
결제환율(수입)	-0.5	-4.91	-11.45	-23.9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매파적 연준에... 1,360원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55.90) 대비 6.10원 상승한 1,359.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강달러와 위안화 약세에 동조해 상승 압력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밤 달러화는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과 국채금리 상승을 쫓아 상승했다.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4월 물가지표에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발언했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양호하고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1회로 고수했다. 특히 로레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연내 3회 금리인하는 적절하지 않고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 2년, 10년 국채금리는 연준 인사 발언 등과 대규모 국채선물 거래가 집중되며 각각 2.33bp, 2.35bp 상승했다. 엔화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 156엔을 상회하기도 했다. 한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험선호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금일 환율은 역내외 저가매수 유입에 상승압력이 우세한 가운데 위안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험선호 회복,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56.00 ~ 1365.00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68.6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10원↑
- ■ 美 다우지수 : 39806.77, -196.82p(-0.49%)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1.73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